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Leisure Time of Unmarried Workers and Influencing Facto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안 수 미*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h.D. Candidate Soo Mi Ah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Ki-Young Lee

〈목 차〉

I. 서론	IV. 결과분석
II. 선행연구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unmarried workers use their leisure time according to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leisure time as it relates to leisure participation rates and leisure participation time and 2)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leisure time and leisure participation by unmarried worker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First, leisure participation differed with variations in leisure activities. Unmarried workers participated in media contact, human relations activities, and hobby activities more than other activities. Participation in learning activities was higher on weekdays than on Sunday. Men participated in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more than women on Sundays. The participation rate of media contact was the highest, while the participation rate of volunteer activities was the lowest.

Second, influencing factors on leisure time included gender, age, monthly income, and gender role attitudes when work time was controlled. For example, unmarried workers with egalitarian attitudes spent less leisure time.

* 주저자 및 교신저자: 안수미(soom@snu.ac.kr)

Third, gender was the strongest determinant of leisure participation. The probability of women's leisure participation was higher than men except in regards to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and hobby activities.

Key Words : 미혼취업자(unmarried workers), 여가시간(leisure time),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여가참여율(leisure participation rate), 여가참여시간(leisure participation time),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

I.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유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점차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가시간이 적었던 과거에는 여가가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자유시간이 증대된 오늘날에는 주어진 자유시간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여가’를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임변장 외, 1996).

여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함과 동시에, 여가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컴퓨터의 대중화로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체육시설이 마련되면서 여가생활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게 되었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상문화를 접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컴퓨터 온라인게임이 보편화되고 개인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교제와 사교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가생활의 내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노동시간이나 생리적시간에 비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이므로 개인이 여가시간에 행하는 활동의 내용도 다르고 이에 따라 생활의 질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여가시간이 양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이 곧 여가생활이 풍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가시간을 연구할 때 여가시간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가생활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증대된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이나 자기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활의 만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전체적으로는 사회자본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태홍 외, 2005).

그러나 2009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와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5세이상 국민이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대부분 텔레비전 시청, 휴식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여가활동의 내용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은 맞벌이 부부와 노인계층에 집중되어 왔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근로시간과 가사노동, 자녀돌보기 시간과 여가시간을 비교하여 일-가정 균형적인 시간사용과 양성평등적인 시간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이기영 외, 1994a; 이승미, 1996; 이현아 외, 1999; 이종희 외, 2002; 차승은, 2008), 최근에는 기혼자들의 여가시간을 가족과 공유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어왔다(이승미 외, 1998; 문숙재 외, 2005a; 김하영, 2008; 신화경, 2009).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활시간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으로 인식되는 노인세대의 여가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을 두어왔다(박미석 외, 2003; 김진옥, 2006; 조경옥, 2005; 이현기, 2007).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0년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37.0%로 아직까지는 1인 가구(23.9%)나 부부가구(15.4%) 보다 많지만 2035년에는 1인가구의 비율이 34.3%로 증가하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20.3%)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1인 가구의 44.9%는 미혼으로, 1인가구의 증가는 미혼인구가 급증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2011년에 남자 31.9세, 여자 29.1세로 1981년의 남자 26.4세, 여자 23.0세가 비교했을 때 30년동안 남자는 5.5세, 여자는 6.1세나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12c). 이로 인해 20대인구의 86.8%가 미혼이며 30대의 미혼비율은 29.2%, 40대의 미혼 비율도 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핵가족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체 인구구조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계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혼계층에 대한 연구는

미혼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미혼자의 결혼관 및 심리적 상태와 사회경제적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여가생활을 다루거나 생활시간을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혼취업자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과 경제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가족돌보기와 같은 가족과 관련된 의무생활시간이 기혼에 비해 적고,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에 대한 연구는 노동조건과 가족환경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혼취업자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결혼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노인세대의 여가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미혼취업자들의 여가시간사용의 실태를 평균여가시간 뿐만 아니라 여가참여율과 여가참여시간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과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미혼인구의 현황

‘미혼’과 ‘독신’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학자나 인구통계학자들에 의하면 미혼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독신’은 미혼이나 사별,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유영주 외, 2000; 박선옥, 2007).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신’은 결혼적령기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로는 혼자 사는 미혼자를 가리킨다(윤소영, 2002 재인용).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는 ‘미혼’인 대상자를 1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미혼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남자 31.9세, 여자 29.1세로 1981년의 남자 26.4세, 여자 23.0세가 비교했을 때 30년동안 남자는 5.5세, 여자는 6.1세나 증가하였다. 2006년의 남자 31.0세, 여자 27.8세와 비교하면 여자의 초혼연령증가율이 최근에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2c). 이로 인해 2010년의 20대 인구의 대부분이(86.8%) 미혼이며 30대의 29.2%, 40대의 7.9%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1>. 남성은 여성보다 미혼율이 높아 30대 남성의 미혼비율은 37.9%이고 40대 남성의 미혼비율도 10.9%나 되었다.

<표 1> 연도별 미혼율 추이

(단위: %)

	1980	1990	2000	2005	2010
15세이상	34.5	33.0	30.1	30.2	30.6
남	40.4	38.2	35.1	35.1	35.6
여	28.7	27.8	25.1	25.4	25.8
20대	58.2	64.4	74.0	83.3	86.8
남	72.6	77.5	84.2	90.1	91.8
여	43.4	50.8	63.2	76.1	81.3
30대	3.3	6.8	13.4	21.6	29.2
남	4.7	9.5	19.2	29.8	37.9
여	1.9	4.1	7.5	13.3	20.4
40대	0.5	1.0	3.0	4.8	7.9
남	0.6	1.2	3.8	6.5	10.9
여	0.4	0.9	2.2	3.0	4.8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재구성.

한편,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1980년 4.8%이었던 것이 2010년에 23.9%에 이르러 전체 가구 중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37.0%)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a).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구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5년에 20.3%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1인가구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져 2035년에는 34.3%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구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2a). 1인가구 중 미혼자의 비율은 45%내외로 1인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인구의 증가가 1인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연도별 1인가구 추이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인 가구	6.9	9.0	12.7	15.5	20.0	23.9
1인가구 중 미혼독신가구	45.7	46.7	46.2	43.0	45.0	44.9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년도, 재구성

2. 미혼의 여가시간

1) 여가와 여가시간

여가(Leisure)는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여가가 모든 사람의 과제로 되고 문제로 된 것은 생산력이 높아지고 신분제가 붕괴되어 자유를 획득하게 된 근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이되면서, 특히 산업혁명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근대적 개념의 여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 여가는 노동시간 외의 ‘비노동시간’으로 인식되며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러

나 20세기에 들어와 기술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대표되는 후기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노동 및 생산 중심적이었던 생활양식이 여가 및 소비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여가의 개념이 대중에게도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가를 노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근무조건의 유연성으로 인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의미에서 여가를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즉 여가를 단순히 노동시간 이외의 한가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가치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시간, 활동, 심리적 상태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가를 정의하는데 있어 시간에 주안을 두면,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을 하고 남은 잔여시간·잉여시간, 노동하는 시간 이외의 자유시간, 의무감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으로 정의된다. 여가를 활동에 주안을 두어 정의하면 생활의 만족이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로이 선택하는 활동, 수면·식사·노동과 같이 상례화된 활동 이외의 활동, 재미있는 활동, 꼭 해야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분전환을 위해 선택한 활동, 일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 등을 의미하게 된다. 여가에 대한 심리적 정의는 자유, 편안함, 즐거움, 휴식 등 여가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여가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여가 선택이 자기성장과 자기개발을 이루고 나아가 생활의 여유로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한다. 이 모두를 고려할 때 여가는 개인이 사용가능한 시간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 각자의 욕구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 능동적인 과정(문숙재 외, 2005b)이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은 여가를 정의하는 서로 다른 측면이지만 생활시간연구에서 여가시간은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 어떠한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여가시간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여가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연구자가 여가를 협의로 해석할 경우 여가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은 단순해지지만, 여가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모든 활동이 여가시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족과의 외식은 식사시간으로서 생리시간에 분류될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여가기능을 고려하면 여가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가족모임이 개인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의무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면 가사노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Robinson & Godbey(1997)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동환경 속에서 여가시간의 의미를 찾으면서 일상생활 중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의 구분조차 점차 모호해지고 지적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여가와 대립되는 활동으로 여겨지는 노동시간조차도 여가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미혼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2000년대에 대두된 미혼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라는 인구구조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혼인상태로는 미혼,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대 중에서는 노인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차경옥, 2006). 이러한 경향은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혼자 사는 미혼자(이하 미혼독신)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실제로 미혼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출산을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혼자에 관한 연구는 미혼여성의 결혼관(김경신 외, 1998; 이재희, 2001; 서지희, 2009)과 미혼독신의 독신동기(김경원 외, 2005),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옥귀주, 1999; 박충선, 2002), 독신자의 심리적 성향(장현숙, 2002)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미혼자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와, 독신자의 원가족과의 관계(김순옥, 2002), 독신자의 경제생활(심영, 2002; 차경옥, 2006; 박선옥, 2007), 미혼자의 직장생활과 직장만족도(이수애 외, 1998; 김은석, 2010; 박정주, 2011)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미혼자의 여가생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권미화(1994)의 연구에서 미혼취업자는 여가욕구가 강하고 적극적인 여가를 선호하며 여행을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꼽고 문화활동과 자기계발활동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이정숙(1999)의 연구에서 미혼직장인은 개인여가활동보다 가족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CRP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혼남녀는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그만큼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기며, 비디오감상(79.6%), 노래방(77.7%)을 선호하고 영화감상(77.3%), 볼링(66.0%), 독서(65.7%)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영, 등산, 농구, 축구 등의 운동과 음악감상, 연극감상을 즐긴다고 조사되었다(김외숙 외, 2000 재인용). 이소영과 황선진의 연구(2003)에서 독신여성은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계발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첨단제품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동호회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을 이용하여 미혼자의 여가생활을 연구한 것으로는 윤소영(2002)의 연구가 있는데, 윤소영은 30-40대 연령 집단을 미혼독신과 미혼집단, 기혼집단으로 나누어 생활시간을 분석하였으며, 미혼독신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일하는 시간량이 많고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이 적으며 적극적인 레포츠 활동보다 조깅이나 맨손체조와 같은 소극적인 활동을 즐긴다고 보고하였다.

미혼취업자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과 경제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 다양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고도성장기의 소위 레저-대중시대에 유소년기를 보내 이미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해온 현재의 미혼취업자들은 장년과 고령자에 비해 풍부한 여가력을 바탕으로 하여 여가활동도 활발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노동환경과 가족환경,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은 생활시간구조상 노동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동환경의 변화가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다. 취업여부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김정석, 2005; 유소이 외, 2002)나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처럼 노동시간 유연성의 정도로 따라 여가시간이 다른지 등의 연구들(이종희 외, 2002; 김효정, 2004)은 모두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실행되고 나서 여가시간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박성연 외, 2007; 이종희 외, 2002; 이종길 외, 2007; 김유선, 2011)은 제도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강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증가된 자유시간이 여가시간의 실제적인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환경 역시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결혼상태에 따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다른지(윤소영, 2002; 조영희,

2004),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여가시간이 변화하는지(박수미 외 2005; 이기영 외, 1994b ; 김하영, 2008), 자녀의 수와 미취학자녀의 유무가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한경미, 1991; 허경옥, 1997; 한영선 외, 2009)은 여가시간에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서 한단계 나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공유여가시간에 대한 연구(이승미 외, 1998; 문숙재 외, 2005a; 김하영, 2008; 신화경, 2009)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노동환경과 가족환경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외적인 요인이라면 개인적 특성은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개인의 여가경험과 여가력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가시간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며(정미자, 1997; 박미석외, 2003; 한영선 외, 2009; 김유선, 2011),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진다(정미자, 1997; 이승미, 1996)고 보고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유수이 외, 2002; 박미석 외, 2003; 이승미 외, 2011),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여성이 자기개발에도 적극적이고 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실제적으로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현기(2007)와 조경옥(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참여에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18세이상 미혼 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자료 중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으며, 요일별 비교를 위하여 평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조사 분석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거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요일별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시간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여가시간을 구성하였으며, 여가활동을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여 필수생활시간으로 간주되는 개인유지와 의무생활시간으로 간주되는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이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영역이 여가시간으로 포함되었다.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활동영역은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일반학습,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며 각각의 활동의 세부내용은 <표 3>에 제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6.0을 이용하였으며, 여가시간의 실태파악을 위해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계산하였다. 생활시간을 분석할 때 주로 이용되는 지표는 행동의 평균시간과 행위자율, 행위자 평균시간이다. 평균시간은 행동의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대상자의 행동별 평균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고 행위자율은 특정행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며 행위자 평균시간은 특정행동을 한 사람들만의 평균시간이다. 여가시간의 경우 여가활동별로 특정 활동에 대한 행위자율이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취업자들의 평균여가시간과 더불어 여가활동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여가시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가활동별 행위자비율을 여가참여율로, 행위자평균시간을 여가참여시간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여가시간 구성활동

여가활동	세부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국가 및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일에 참여하는 활동
	자원봉사
교제활동	전화를 이용한 교제(문자메세지 포함)
	가족·친척과의 교제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채팅, 이메일 등)
일반학습*	외국어관련학습
	컴퓨터관련학습
	자격증, 취업관련 학습
	취미관련 학습
	그 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신문
	잡지
	TV
	비디오, DVD, PMP, DMB
	라디오
	CD, TAPE, MP3
	인터넷 정보검색
	인터넷 기타(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종교활동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 집회·모임 참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경기관람
스포츠 및 레저활동	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단체스포츠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그 외 집밖의 레저활동(낚시, 캠핑, 놀이공원 등)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독서
	컴퓨터게임(휴대용 포함)
	놀이(바둑, 장기, 카드 등)
	취미활동(서예, 만들기, 모으기 등)
	유흥
	담배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쉼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중 대분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의 학습활동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함.

또한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여가활동별 여가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미혼취업자는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성인 중 혼인상태가 “미혼”이고, 생활시간조사기간 1주일동안의 경제활동여부를 묻는 문항에 “일을 했음”으로 응답한 사람(1)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미혼취업자의 시건일지는 3,002개로 집계되었고, 이중 남자 가

1572개(52.4%), 여자가 1430개(47.6%)이며, 요일별로는 평일이 2260개(75.3%), 일요일이 742개(24.7%)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4>과 같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혼취업자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시간과 여가활동별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전체(3,002)	남(1,572)	여(1,430)
연령	10대	185(6.2)	79(5.0)	106(7.4)
	20대	1890(63.0)	880(56.0)	1010(70.6)
	30대	737(24.6)	489(31.1)	248(17.3)
	40대	190(6.3)	124(7.9)	66(4.6)
교육수준	중졸이하	63(2.1)	54(3.4)	9(0.6)
	고졸	664(22.1)	421(26.8)	243(17.0)
	대졸	2167(72.2)	1059(67.4)	1108(77.5)
	대학원이상	108(3.6)	38(2.4)	70(4.9)
직업	관리자·전문가	828(27.6)	283(18.0)	545(38.1)
	사무직	742(24.7)	302(19.2)	440(30.8)
	서비스·판매직	668(22.3)	312(19.8)	356(24.9)
	농림·기능·조립·단순노무직	764(25.4)	675(42.9)	89(6.2)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932(31.0)	433(17.5)	499(3.9)
	200만원미만	1582(52.7)	831(52.9)	751(52.5)
	300만원미만	376(12.5)	227(14.4)	149(10.4)
	400만원미만	85(2.8)	61(3.9)	24(1.7)
	400만원이상	27(0.9)	20(1.3)	7(0.5)
성역할태도	전통적	764(25.4)	522(33.2)	242(16.9)
	근대적	2238(74.6)	1050(66.8)	1188(83.1)

1)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지표 중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규정함.

- 1)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여가활동별 평균시간, 여가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어떠한가?
- 2)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과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 여가활동별 여가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시간 42분, 일요일에 2시간 18분을 일하는데 사용하고, 여성은 평일에 6시간 16분, 일요일에 2시간 3분을 사용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미혼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25분, 일요일 51분으로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의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10분이고, 기혼취업여성이 3시간 20분, 기혼취업남성이 39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것(통계청, 2010)과 비교해 볼 때 미혼취업자가 다른 성인들에 비해 가사노동의 의무에서 많이 벗어나있고 미혼취업자에게 가사노동시간이 선택적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에 남성은 3시간 57분, 여성이 3시간 27분을 여가시간을 사용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으나 그 시간의 차이를 여가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유지와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에 남성은 7시간 12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고 여성은 6시간 12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에 비해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을 비교해 볼 때 평일보다 일요일에 여가시간의 차이가 더 커졌다. 여가시간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

IV. 결과분석

1.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 실태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하루 전체의 생활시간구조 내에서의 여가시간을 살펴보고 여가시간을 구성하는 여가활동별로 평균여가시간, 여가참여율, 여가참여시간을 측정하였다.

1) 미혼취업자의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미혼취업자의 하루 생활시간을 개인유지, 일, 가사노동, 여가,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일하는 시간을 보면 미혼남성은 평일에 6

<표 5> 미혼취업자의 생활시간구조

(단위: 시간:분)

	평일			일요일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개인유지	10:36	10:23	10:49	12:02	11:49	12:19
일	6:30	6:42	6:16	2:11	2:18	2:03
가사노동	0:25	0:16	0:35	0:51	0:32	1:14
여가	3:42	3:57	3:27	6:45	7:12	6:12
이동	2:06	2:08	2:03	1:46	1:46	1:46

은 일하는 시간이 감소할 때 남성이 그 시간을 대부분 여가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비해 여성은 개인유지와 가사노동에 사용하느라 남성만큼 여가시간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

2) 여가활동별 여가시간과 여가참여율, 여가참여시간

미혼취업자가 여가시간을 어떠한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활동별 여가시간과 여가참가율, 여가참여시간을 측정하였다.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여가활동에 따라 평균시간에 차이가 있었다<표 6>.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미디어이용이며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평균시간이 평일과 일요일 모두 10분을 넘지 않고 있다. 미디어이용에 이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활동은 교제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다. 남성의 경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교제활동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여성은 교제활동의 시간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시간보다 많다. 한편 다른 여가활동시간이 평일보다 일요일에 증가하는데 반해 일반학습활동의 평균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의 경우 여성은 평일과 일요일의 시간차이가 별로 없지만 남성은 평일과 일요일간의 차이가 크다.

여가시간이 여가활동별로 평균시간의 차이가 크고 평일과 일요일간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여가시간의 변화가 행위자율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행위자평균시간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활동들에 대한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살펴보았다<표 7와 표 8>.

먼저 참여 및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참여 및 봉사활동은 여가활동 중 가장 참여율이 낮고 일요일의 경우에도 참여율의 변화가 적다. 여가참여시간은 다른 활동에 비해 작지 않으나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참여시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성향이라 말하기 어렵다. 교제활동은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모두 높으나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남녀간 참여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일반학습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나 참여시간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중에서 참여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할 때 다른 여가활동들이 평일보다 일요일에 참여율이 높아지는 반해 일반학습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참여율은 떨어지고 참여시간은 길어지는 양상을 보

〈표 6〉 여가활동별 평균시간

(단위: 시간:분)

	평일			일요일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참여 및 봉사활동	0:02	0:03	0:01	0:08	0:09	0:08
교제활동	0:42	0:40	0:44	1:02	0:59	1:06
일반학습	0:13	0:11	0:14	0:11	0:10	0:12
미디어 이용	1:29	1:33	1:26	2:53	2:57	2:49
종교활동	0:03	0:01	0:05	0:20	0:16	0:23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0:03	0:04	0:02	0:16	0:13	0:19
스포츠 및 레저활동	0:15	0:16	0:13	0:33	0:44	0:19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0:55	1:11	0:38	1:29	1:51	1:03

인다. 이는 일반학습이 일요일보다 평일에 더 선호되고 있으며 일요일에 학습하는 경우 더 집중적인 시간투자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 이용은 가장 참여율이 높으나 평일의 경우 참여시간은 다른 여가활동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일요일의 경우 참여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참여시간도 여가활동 중 가장 많았다. 종교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나 참여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활동과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활동은 평일과 일요일의 참여율의 변화가 커서 활동의 성격상 주말-휴일형 여가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평일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일요일에는 남성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여성보다 높으며

동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나 참여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활동과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활동은 평일과 일요일의 참여율의 변화가 커서 활동의 성격상 주말-휴일형 여가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은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평일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일요일에는 남성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여성보다 높으며

〈표 7〉 여가활동별 참여율과 참여시간 (평일)

(단위: 빈도, %, 시간:분)

	여가참여율				여가참여시간			
	전체	남	여	X ²	전체	남	여	F
	2,260(100.0)	1,164(100.0)	1,096(100.0)		3:00	3:35	1:29	
참여 및 봉사활동	25(1.1)	16(1.4)	9(0.8)	1.580	3:00	3:35	1:29	2.746
교제활동	1,718(76.0)	850(73.0)	868(79.2)	11.799***	0:55	0:54	0:56	.785
일반학습	206(9.1)	81(7.0)	125(11.4)	13.471***	2:18	2:41	2:03	4.897*
미디어 이용	1,835(81.2)	930(79.9)	905(82.6)	2.648	1:50	1:56	1:44	10.628***
종교활동	64(2.8)	14(1.2)	50(4.6)	23.150***	1:47	1:48	1:47	.001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59(2.6)	18(1.5)	41(3.7)	10.692***	1:59	2:02	1:58	.133
스포츠 및 레저활동	506(22.4)	269(23.1)	237(21.6)	.717	1:05	1:08	1:01	3.522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1,560(69.0)	903(77.6)	657(59.9)	82.083***	1:20	1:32	1:04	57.189***

*p<.05, **<.01, ***<.001

〈표 8〉 여가활동별 참여율과 참여시간 (일요일)

(단위: 빈도, %, 시간:분)

	여가참여율				여가참여시간			
	전체	남	여	X ²	전체	남	여	F
	742(100.0)	408(100.0)	334(100.0)		1:29	1:57	1:08	
참여 및 봉사활동	7(0.9)	3(0.7)	4(1.2)	.420	1:29	1:57	1:08	.706
교제활동	604(81.4)	330(80.9)	274(82.0)	.161	1:16	1:13	1:20	2.071
일반학습	55(7.4)	24(5.9)	31(9.3)	3.092	2:30	2:53	2:13	1.622
미디어 이용	666(89.0)	372(91.2)	294(88.0)	1.985	3:13	3:14	3:12	.054
종교활동	82(11.1)	37(9.1)	45(13.5)	3.624	2:57	3:02	2:53	.108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95(12.8)	45(11.0)	50(15.0)	2.555	2:04	2:02	2:06	.301
스포츠 및 레저활동	242(32.6)	161(39.5)	81(24.3)	19.330***	1:42	1:53	1:20	13.810***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576(77.6)	339(83.1)	237(71.0)	15.560***	1:55	2:13	1:29	31.226***

*p<.05, **<.01, ***<.001

〈표 9〉 세부활동별, 요일별 여가참여율

(단위: 빈도, %)

	평일				일요일			
	전체	남	여	X ²	전체	남	여	X ²
	2,260(100.0)	1,164(100.0)	1,096(100.0)		742(100.0)	408(100.0)	334(100.0)	
전화이용교제	985(43.6)	494(42.4)	491(44.8)	1.278	361(48.7)	203(49.8)	18(47.3)	.441
가족·친척과 교제	196(8.7)	81(7.0)	115(10.5)	8.901**	116(15.6)	60(14.7)	56(16.8)	.591
그외사람들과 교제	1219(53.9)	596(51.2)	623(56.8)	7.228**	387(52.2)	211(51.7)	176(52.7)	.071
인터넷이용교제	76(7.8)	74(6.4)	102(9.3)	6.837**	73(9.8)	35(8.6)	38(11.4)	1.622
외국어관련학습	79(3.5)	26(2.2)	53(4.8)	11.330***	28(3.8)	13(3.2)	15(4.5)	.861
컴퓨터관련학습	19(0.8)	10(0.9)	9(0.8)	.010	4(0.5)	4(1.0)	0(0.0)	3.292
자격증,취업관련학습	66(2.9)	34(2.9)	32(2.9)	.000	11(1.5)	6(1.5)	5(1.5)	.001
취미관련 학습	23(1.0)	6(0.5)	17(1.6)	6.010*	3(0.4)	0(0.0)	3(0.9)	3.680
기타 학습	31(1.4)	9(0.8)	22(2.0)	6.355*	12(1.6)	3(0.7)	9(2.7)	4.431*
신문	158(7.0)	115(9.9)	43(3.9)	30.800***	45(6.1)	26(6.4)	19(5.7)	.151
잡지	44(1.9)	34(3.1)	10(0.9)	14.878***	20(2.7)	3(0.7)	17(5.1)	13.278***
TV	1547(68.5)	776(66.7)	771(70.3)	3.540	20(83.6)	345(84.6)	275(82.3)	.661
비디오,DVD등	9(0.4)	2(0.2)	7(0.6)	3.102	9(1.2)	6(1.5)	3(0.9)	.502
라디오	13(0.6)	7(0.6)	6(0.5)	.029	10(1.3)	4(1.0)	6(1.8)	.920
CD, TAPE, MP3	63(2.8)	23(2.0)	40(3.6)	5.835*	33(4.4)	15(3.7)	18(5.4)	1.268
인터넷 정보검색	781(34.6)	441(35.9)	363(33.1)	1.943	283(38.1)	158(38.7)	125(37.4)	.132
인터넷 관리	174(7.7)	77(6.6)	97(8.9)	3.969*	111(15.0)	57(14.0)	54(16.2)	.697
개인종교활동	36(1.6)	10(0.9)	26(2.4)	8.245**	12(1.6)	10(2.5)	2(0.6)	3.960
종교집회·모임참가	31(1.4)	7(0.6)	24(2.2)	10.527**	77(10.4)	34(8.3)	43(12.9)	4.072
영화	53(2.3)	16(1.4)	37(3.4)	9.873**	84(11.3)	40(9.8)	44(13.2)	2.077
스포츠경기관람	1((0.0)	0(0.0)	1(0.0)	1.063	5(0.7)	2(0.5)	3(0.9)	.457
걷기,산책	183(8.1)	89(7.6)	94(8.6)	.657	84(11.3)	44(10.8)	40(12.0)	.260
등산,하이킹	4(0.2)	2(0.2)	2(0.2)	.004	17(2.3)	13(3.2)	4(1.2)	3.245
체력단련 개인운동	270(11.9)	115(9.9)	155(14.1)	9.750**	69(9.3)	41(10.0)	28(8.4)	.604
단체스포츠	75(3.3)	71(6.1)	4(0.4)	57.860***	78(10.5)	73(17.9)	5(1.5)	52.478***
드라이브,소풍,관광 및 구경	9(0.4)	4(0.3)	5(0.5)	.180	24(3.2)	14(3.4)	10(3.0)	.112
기타 레저	5(0.2)	5(0.4)	0(0.0)	4.718	9(1.2)	7(1.7)	2(0.6)	1.912
독서	294(13.0)	94(8.1)	200(18.2)	56.618***	133(17.9)	52(12.7)	81(24.3)	16.528***
컴퓨터게임	445(19.7)	366(31.4)	79(7.2)	209.667***	213(28.7)	173(42.4)	40(12.0)	83.073***
놀이	31(1.4)	15(1.3)	16(1.5)	.122	14(1.9)	10(2.5)	4(1.2)	1.559
취미활동	25(1.1)	12(1.0)	13(1.2)	.124	9(1.2)	4(1.0)	5(1.5)	.409
유흥	252(11.2)	174(14.9)	78(7.1)	34.947***	123(16.6)	90(22.1)	33(9.9)	19.697***
담배피우기	264(11.7)	261(22.4)	3(0.3)	268.420***	79(10.6)	79(19.4)	0(0.0)	72.378***
아무것도안하고싶	754(33.4)	424(36.4)	330(30.1)	10.131**	228(30.7)	130(31.9)	98(29.3)	.549

*p<.05, **<.01, ***<.001

참여봉사활동의 세부활동과 연극·콘서트관람, 전시회·박물관관람은 평일, 일요일 모두 참여율이 0.1%미만으로 나타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변화의 폭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고 참여시간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가활동별 평균여가시간은 참여시간보다 여가참여율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여가 참여율도 높아지고 여가참여시간도 증가하여 평균여가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평일의 미디어 이용활동의 참여시간과 종교활동의 참여시간이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의 차이로 인하여 평균여가시간이 1시간 29분과 3분으로 차이를 보이며,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활동의 경우는 참여시간이 평일과 일요일에 비슷하지만 참여율의 증가로 인해 평균시간이 3분에서 16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내에서도 세부활동에 따라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교제활동을 보면 미혼취업자는 가족이나 친척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로 친구나 직장동료 등의 사람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활동의 경우 미혼취업자는 외국어학습과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외국어학습과 취미관련학습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이용활동 중 TV시청의 참여율은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디어이용활동의 참여시간도 큰 것으로 볼 때 미혼취업자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이용활동에서 인터넷정보검색은 TV시청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과 주말에 고른 참여율을 보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활동과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와 같은 활동, 컴퓨터게임 등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컴퓨터의 보급이 여가시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개인적 종교활동보다 종교집회나 모임에 참가하는 비율이 일요일에 높아지면

서 여가참여율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의 세부활동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은 평일의 여성참여율이 남성보다 더 높지만 일요일에 오히려 평일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체스포츠의 참여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일요일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세부활동의 성격이 동질적이지 않아 세부활동별로 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독서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며, 컴퓨터게임과 유흥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의 경우 일요일에 단체스포츠나 유흥 등 혼자 즐기는 여가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여가시간과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직업, 교육수준, 성역할태도를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가 여가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가시간은 취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 개인유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른 시간요소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고찰할 경우 왜곡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만을 영향변수로 선정한 기본모델과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 취업노동시간을 측정된 “일”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시킨 통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시간 중 일하는 시간만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일하는 시간은 취업노동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져 개인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미혼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과 개인유지시

간은 여가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유시간 중에서 선택한 활동을 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일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평일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본모델과 통제 모델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이 통제되지 않은 기본모델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보다 대졸과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정미자, 1997; 유소이 외, 2002; 박미석 외, 2003; 이승미 외, 2011; 한영선 외, 2009; 김유선, 2011)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개인유지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여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여가에 대한 요구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소득은 영향요인 중 가장 영

향력이 크며,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소득이 높을 경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갖출 수 있어 여가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로,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일요일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이 취업노동시간이 많아 여가시간 사용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일하는 시간을 통제한 통제모델에서는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통제모델에서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모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월평균소득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노동시간을 통제한 이후에도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시

<표 10>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일)

변인	구분	기본모델			통제모델		
		B	S. E	Beta	B	S. E	Beta
일					-.466***	.014	-.622
성별(기준:남성)	여성	-33.919***	6.066	-.128	-39.523***	4.930	-.149
연령		1.686***	.497	.082	1.566***	.404	.076
월평균소득		-24.015***	1.922	-.290	-3.786*	1.670	-.046
직업 (기준:사무직)	관리전문직	9.708	7.417	.033	6.301	6.025	.021
	서비스판매	5.506	8.039	.017	-19.822**	6.572	-.062
	농림기능단순노무	10.972	8.538	.036	-4.691	6.951	-.015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11.118	19.431	-.012	-27.144	15.791	-.030
	대졸	27.157***	7.113	.092	-1.308	5.838	-.004
	대학원	57.784***	16.184	.080	-9.050	13.292	-.012
성역할태도 (기준:전통적)	근대적	-10.497	6.312	-.034	-13.373**	5.128	-.044
	상수향	273.129***	18.332		410.910***	15.430	
R Square		.089			.399		
F		22.017***			135.840***		

*p<.05, **<.01, ***<.001

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미혼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이 높을 때 여가시간의 양을 늘리기도 다 여가활동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교육수준은 일하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와 반대로 일하는 시간을 통제할 때 직업에 따라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이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여가시간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사무직보다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수면과 같은 개인유지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역할태도는 통제모델에서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경우 전통적인 경우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때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것으로

미혼취업자의 성역할태도가 여가시간보다 다른 생활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 않다<표 11>. 기본모델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여가시간이 많고 고졸보다 중졸이 여가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서비스판매직이 사무직에 비해 여가시간이 적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판매직이 일요일에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일하는 시간이 통제된 모델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통제모델에서는 성별만이 여가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취업자가 일요일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성별에 따라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요일)

변인	구분	기본모델			통제모델		
		B	S. E	Beta	B	S. E	Beta
일					-.606***	.023	-.704
성별(기준:남성)	여성	-65.646***	14.950	-.186	-62.501***	10.695	-.177
연령		2.007	1.196	.071	1.259	.856	.045
월평균소득		-6.176	4.301	-.058	-4.416	3.078	-.041
직업 (기준:사무직)	전문관리직	-27.277	18.012	-.068	3.758	12.939	.009
	서비스판매	-102.203***	18.867	-.243	-1.687	14.023	-.004
	농림기능단순노무	-33.422	19.603	-.085	16.909	14.152	.043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103.001*	47.927	-.080	-5.318	34.484	-.004
	대졸	24.180	16.694	.062	11.944	11.952	.030
	대학원	37.171	35.757	.042	26.999	25.582	.030
성역할태도 (기준:전통적)	근대적	-4.850	14.413	-.012	-7.048	10.311	-.018
	상수항	431.075***	43.327		486.514***	31.066	
R Square		.085			.532		
F		6.799***			75.568***		

*p<.05, **<.01, ***<.001

2) 여가활동별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활동별로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가활동별 참여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여가참여율이 너무 낮아 통계적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다른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표 12>과 <표 13>에 제시되었다. 평일의 분석결과는 여가활동별 로짓모델의 적합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일요일의 분석결과는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모델만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활동의 경우 평일에 교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보다 전문직의 참여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학습참여확률이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과 직업이 미혼취업자의 자기개발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미디어이용을 살펴보면 평일에 남자보다 여자의 참여율이 높고 30세미만보다 30세이상의 참여율이 높고 고졸자에 비해 중졸자와 대졸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활동의 경우 평일에는 성별과 연령, 직업,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 평일의 종교활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종교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디어이용과 종교활동의 경우 일요일에는 어떠한 변수도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활동이 일요일에 행해지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성격이 있어

<표 12> 여가활동별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균)

		교제	일반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기타
		B	B	B	B	B	B	B
성별(남성)	여성	.239*	.088	.319**	1.698***	.802*	-.062	-.760***
연령 (30세미만)	30세 이상	-.225	-.066	.436***	1.475***	-.799	.602***	.001
교육수준 (고졸)	중졸	-.293	-.502	1.628*	.779	-15.839	.449	-.171
	대졸	-.025	.525*	.293*	.893*	1.592**	.455**	-.049
	대학원	-.099	.481	.383	.584	-15.828	.814**	-.322
직업 (사무직)	전문직	-.331*	.271	-.283	.537	-.371	.074	.198
	서비스판매	.105	-.759***	-.311	-1.488*	-.414	-.416**	.290*
	농림기능단순노무	-.294	-1.327***	.018	.150	.071	-.059	.412**
월평균소득	.040	-.197***	-.047	-.205*	-.183	-.073*	-.044	
성역할태도 (전통적)	근대적	.179	-.141	-.145	-.905***	.012	-.033	-.015
	상수향	.998***	-1.571***	1.403***	-4.563***	-4.389***	-1.384***	1.236***
-2 Log likelihood		2453.618	1295.723	2149.390	492.064	504.351	2349.689	2698.397
Chi-square		36.341***	83.742***	35.522***	90.329***	42.274***	54.012***	98.977***

*p<.05, **<.01, ***<.001

〈표 13〉 여가활동별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요일)

		교제	일반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기타
		B	B	B	B	B	B	B
성별(남성)	여성	-.023	.222	-.231	.302	.148	-.660***	-.726***
연령 (30세미만)	30세 이상	-.810***	-.071	-.063	.453	-.233	.741***	.209
교육수준 (고졸)	중졸	-.419	1.164	18.986	-18.706	-.149	-.837	-1.168
	대졸	-.172	1.181*	.023	.360	-.027	.514*	-.050
	대학원	-.301	.786	-.453	.421	.655	.497	.786
직업 (사무직)	전문직	.031	.120	-.117	.034	-.137	-.309	.072
	서비스판매	.060	-.185	.059	-.519	-.742*	-.639*	-.050
	농림기능단순노무	.137	-.303	.051	-.520	-.646	-.088	.165
월평균소득		.035	-.185	.090	-.040	.116	-.010	-.043
성역할태도 (전통적)	근대적	.160	-.191	.160	-.357	-.033	.137	.124
	상수향	1.591***	-2.643***	1.793**	-2.007***	-2.090***	-.897*	1.628***
-2 Log likelihood		696.621	376.235	483.163	498.772	549.993	886.023	765.102
Chi-square		16.213	15.805	7.122	17.044	17.829	50.998***	23.757**

*p<.05, **<.01, ***<.001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포츠레저활동은 평일과 일요일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확률이 높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경우 평일에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판매직과 농림단순직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사무직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데 반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서 참여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취미 및 그 외 활동을 구성하는 세부활동이 문화행사참여나 스포츠레저활동과 같은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를 위한 준비나 비용, 별도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는 활동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어 취업노동조건

이 사무직과 다른 서비스판매직 취업자들이 시간을 활용하기에 용이한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의 실태와 여가시간과 여가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미혼취업자는 평일에 남성은 3시간 57분, 여성이 3시간 27분을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일요일에 남성은 7시간 12분, 여성은 6시간 12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가활동을 하는 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으나 그

시간의 차이를 여가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유지와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일하는 시간이 감소할 때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둘째,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은 여가를 구성하는 활동별로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가활동별로 참여율과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별 평균여가시간의 차이는 참여시간의 차이보다 여가참여율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보다 더 많은 미혼취업자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활동별 참여율을 통해 미혼취업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이용활동 중에서 인터넷정보검색은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과 주말에 고른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활동,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 활동 및 컴퓨터 게임 등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은 미혼취업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제활동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로 친구나 직장동료 등의 사람들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보다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미혼자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혼취업자는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는 학습활동 중에서도 외국어학습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과 같이 직업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째,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일하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은 기본모델과 일하는 시간을 통제된 모델에 따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

을 통제하지 않은 모델에서 평일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하는 시간을 통제된 통제모델에서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의 여가시간이 적으며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 때 전통적인 경우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모델과 통제모델의 결과를 통해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취업노동시간의 통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노동시간의 통제로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이 보다 분명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취업자는 기업취업자가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보기를 의무활동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가사노동도 개인유지나 여가와 더불어 취업노동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에 개인이 선택한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여가시간을 설명할 때 개인유지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무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여가시간이 더 적은 이유는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사무직보다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수면과 같은 개인유지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경우 전통적인 경우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미혼취업자가 가사노동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네째, 여가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평일의 여가참여여부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가 여가활동별로 각각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미디어이용활동과 종교활동의 경우 어떠한 변수도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두 활동이 일요일에 행해지는 보편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월평균소득과 성역할태도는 평일에는 여가활동별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요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소득이 높을 때 평일의 여가참여가 낮은 것은 취업노동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성역할태도는 종교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요일의 종교활동은 일반적인 휴일형 여가활동이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이 기혼자나 노인과 달리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가참여율이 낮을 뿐 아니라, TV시청, 전화교제,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권미화, 1994; 이소영 외, 2003)에서 미혼자들이 적극적이고 자기계발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미혼취업자가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실제로 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혼취업자들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부터 벗어나 활동적이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취업자가 참여 및 봉사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자원봉사와 같이 자기계발과 사회계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가활동에 미혼취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혼취업자를 사회자본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장단위의 취미·체육·봉사활동 동호회를 조직하도록 유도하거나, 취업자들이 평일에 취업노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조정하거나 취미강좌 등을 개설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이 노동시간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노동시간을 통제하고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동일한 취업노동시간이라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산업 및 직종에 따라 또는 직업상의 지위에 따라 노동시간의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간이 변화하지 않는 한 여가시간의 변화가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논의할 때 항상 중심적으로 다루어진 문제인데, 기혼취업자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미혼취업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총노동시간의 단축이나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같은 정책의 도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휴가와 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봉사활동, 여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가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사무직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판매직의 취업노동조건이 사무직에 비해 여가생활을 하는데 불리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서비스판매직의 여가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판매직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취미 및 그 외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여가활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교제활동, 미디어이용활동,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지만 스포츠레저활동과 취미 및 기타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낮다. 남성은 단체스포츠와 컴퓨터게임, 유흥 등의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는데 비해 여성은 음악감상, 영화보기, 독서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활동에 있어서도 남성이 일요일에 단체스포츠에 참여하

는 반면 여성은 운동을 하더라도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을 평일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가연구에 하는데 있어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여 모델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여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도 남성과 여성의 요구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의 단체스포츠활동이 용이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미혼취업자가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게임중독이나 불건전한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여가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을 분류하는데 있어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행동분류별 세부활동을 살펴볼 때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서로 나뉘어 들어가거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처럼 성격이 다른 활동들이 하나의 범주에 묶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데에는 여가활동의 분류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에 따라 여가활동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통제된 모델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생활시간구조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미혼취업자의 생활시간구조와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미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미혼취업자와 기혼취업자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해 여가생

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혼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변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1999년부터 5년마다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취업자의 여가생활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 여가생활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남국(2002). 여가사회의 이해. 형설출판사.
- 2)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생활과학회지, 1(1), 27-43.
- 3) 김경원·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 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4) 김순옥(2002).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73-184.
- 5) 김영선(2010).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감 논쟁에 대한 비판. 노동연구 20, 121-145.
- 6) 김유선(2011).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7(1), 37-70.
- 7) 김은석(2010). 청년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이 이직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3), 107-122.
- 8)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9) 김정석(2005). 한국중년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2-201.
- 10) 김진옥(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11) 김태홍·주재선·김난주(2005). 여가와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 투자간의 시간배분 분석.

- 통계청 2004년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12) 김하영(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여가유능감 및 가족여가공유여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85-96.
 - 13)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99-116.
 - 14) 권미화(1994). 미혼신세대소비자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여가활동과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15) 문숙재·윤소영·윤지영(2005a).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31-39.
 - 16) 문숙재·윤소영·차경옥·천혜정(2005b). 여가문화와 가족. 신정출판사.
 - 17) 박미석·이유리(2003).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37-48.
 - 18) 박수미·선보영·김진옥(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9) 박선옥(2007). 미혼독신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행태 및 유형화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20) 박성연·이기영(2007). 주5일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만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137-154.
 - 21) 박정주(2011). 청년여성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0(2), 213-229.
 - 22)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 23) 서지희(2009). 미혼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신화경(2009). 주5일 근무자들의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 20호, 1-11.
 - 25) 심 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26) 옥귀주(1999). 미혼독신자의 생활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27)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28) 유영주·서동인·홍숙자·전영자·이정연·오윤자·이인수(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 29)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혼 및 기혼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30)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a).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31) 이기영·이승미(1994b).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32) 이소영·황선진(2003). 20·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6호, 268-281.
 - 33) 이수애·김정란(1998). 고학력 미혼 취업여성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복지사회연구, 2, 51-75.
 - 34)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35) 이승미·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36) 이승미·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

- (5), 81-96.
- 37) 이정숙(1999). 미혼직장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0(1), 33-42.
- 38) 이종길·김동건·이문숙(2007). 완전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패턴의 변화가 여가만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2), 301-316.
- 39) 이종희·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40) 이재희(2001).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사학위논문.
- 41) 이현기(2007). 노인여가활동의 연령차이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231-256.
- 42) 이현아·이기영·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43) 임변장·김홍철(1996).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5(4), 480-491.
- 44)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85-195.
- 45) 정미자(1997). 한국노인의 여가실태와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조경옥(2005). 여성 노인의 건강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203-229.
- 47)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48) 차경옥(2006).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49)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50)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51) 한영선·윤소영(2009).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52)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53)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54) 통계청(2012a). 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
- 55) 통계청(2012b).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특성변화 보도자료.
- 56) 통계청(2012c). 2011 한국의 사회지표.
- 57)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연도별
- 5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별
- 59) Cargan, L. (1981). Single : An examination of two stereotypes. Family Relations, July, 380- 385.
- 60) Gershuny, J.(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61) Jackson, E. L. & Burton, T. L. (Ed.) (1999). Leisure studies :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 College, Pennsylvania : Venture Publishing, Inc.
- 62) Kelly, J. R.& Godbey, G.(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ennsylvania : Venture Publishing, Inc.
- 63) Kelly, J. R & Kelly, J. R.(1994). Multiple dimensions of meaning in the domains of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50-274.
- 64) Robinson, J. P. & Godbey, G.(1997). Time for life :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65) Rollins, J.(1986). Single men and women :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Family Perspective,
vol. 20, 117-124.

66) Shaw, S. M.(1986). Leisure, Recreation or

Free Time? Measuring Time Usa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3), 177-189.

- 투 고 일 : 2012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13일